

추재 조수삼의 시문학의 주제사상적특성

박 정 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난 시대의 작가와 작품을 문학사나 예술사에서 취급하는 목적은 어디까지나 작가, 예술인들과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우리 문학사와 예술사에도 당대 문학예술발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 작가와 작품이 있었다는것을 알려줌으로써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는 동시에 지난날의 력사에서 경험과 교훈을 찾게 하자는데 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6권 171페이지)

우리 나라 력사에 이름을 남긴 재능있는 문인들가운데는 조선봉건왕조말기 서민문학의 대표적인 작가의 한사람인 조수삼(자: 지원, 자익. 호: 추재)도 있다.

그는 봉건사회의 붕괴과정이 촉진되며 실학사상이 보급되던 1762년 7월 16일(음력) 서민가문에서 삼형제의 막내아들로 태어났다.

어린 나이에 글을 익히고 력사책과 이름난 문인들의 문집을 탐독하면서 그는 사람들을 경탄시키는 우수한 시작품들을 창작하여 어려서부터 두각을 나타내었다.

그에게서는 1790년 처음으로 사신단의 한 성원으로 이웃나라에 갈 때 로상에서 그 나라 언어를 익혀 자유로운 대화로 의사소통을 진행하였다는 이야기도 전해지었다.

조수삼이 젊은 시절에 벼슬은 없었지만 자기의 뛰어난 재능으로 하여 여러차례나 외교사업에 선발되었다는 하나의 사실만 놓고보아도 당시 사회적으로 그에 대한 평가가 얼마나 높았는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게 한다.

그러나 아무리 학식과 재능이 뛰어나고 명망이 높다고 하여도 서민출신이라는 신분적 제한성으로 하여 그는 오래동안 벼슬을 하지 못하였다.

그는 82살 되던 1844년에야 비로소 진사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고 오위장이라는 벼슬을 받았다.

그는 벼슬을 하면서도 실학과문인들과 서민출신의 문인들을 비롯하여 각이한 사람들과 교우관계를 맺고 자기의 지식과 견문을 넓히고 수양을 더욱 높여나갔다.

추재 조수삼은 1849년 5월 5일(음력) 87살을 일기로 생을 마쳤다.

비록 서민출신의 시인이였지만 그는 정치와 경제, 력사와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뛰어난 재능을 소유하고 품성이 바른것으로 하여 당시는 물론 후세에도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찬사를 받았다.

조수삼의 후배인 조희룡(1797—1859)은 《호산왜사》에서 그의 다방면적인 재능을 전하면서 《세상에서는 추재에게 무릇 10가지 재주가 있는데 그 한가지만이라도 얻는 사람은 한생을 편안히 보낼수 있을것이라고 일러오고있다. 그 첫째는 풍모요, 둘째는 시문이요, 셋째는 공령(문과과거를 보는데 리용되는 글의 체)이요, 넷째는 의학이요, 다섯째는 장기와 바둑이요, 여섯째는 그림이요, 일곱째는 기억력이요, 여덟째는 담론이요, 아홉째는 복있는 운수요, 열째는 수명이다.》(《리향견문록》 권6)라고 하였다.

특히 조수삼은 시작품들을 분석평가하는데서 작가의 의도를 깊이 파악하고 재능을 옮겨 가려보아야 한다는 미학적견해를 가지고있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수많은 시들을 지어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받아보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시들도 수많이 보고 평가하는 과정에 작품을 옳바로 평가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는것을 인식하였으며 그로부터 실속없는 빈소리로 무작정 추어주거나 내리쥎는것과 같은 불공정한 비평을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조수삼은 다른 사람이 자기의 시를 평가하면서 아무런 타당성도 없이 다른 나라의 이름난 문인의 기풍이 있다고 칭찬한데 대하여 《그 말이 과연 깊이 알고 본것이 많은데서 우러나온 말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나는 말로 잘됐다고 이를테면 점쟁이가 사주팔자 보아주는 그러한 식의 칭찬이 아니였는지.》하고 의심을 표시하면서 자기가 지은 시들의 결함에 대하여 스스로 겸손하게 지적하였다.

이러한 미학적견해를 가진 조수삼은 당시 사회적으로 무시할수 없는 역량으로 자라난 서민출신의 문인들과 함께 재능은 있으나 사회적으로 버림을 받는 서민들의 불우한 처지에 대한 불만, 당대 사회현실의 모순과 불합리성을 반영한 한자시들을 적지 않게 창작하였다.

그의 시문학유산은 《추재집》(8권 4책)의 1-7권에 그대로 실려있다.

조수삼이 사망한 이후에 편찬된 《추재집》에는 작가가 살아있을 때 묶어진 《경원시총》, 《추재시초》, 《추재시교》 등에 실려있던 시들이 전부 올라있으며 이미 이 저서들은 우리나라에서는 물론이고 다른 나라에까지 널리 알려져있었다.

그의 시세계를 살펴보면 일반량반문인들의 시와 구별되는 일련의 주제사상적특성을 가지고있다.

그것은 우선 지식이나 재능보다도 문벌과 신분에 따라 사람들을 갈라놓고 인격과 존엄을 무시하는 당시의 사회현실에 대한 불만의 사상감정이 깊이있게 반영되어있는것이다.

시 《성밖을 나와 약산을 찾는 길에》는 그 뚜렷한 실례이다.

나그네생활 그 몇해에 내 신세 그르쳤나	幾年萍跡誤儒冠
몸도 파리해지고 글도 메말랐고나	身與吾詩兩瘦寒
관가기생 내 술숨씨 매양 조롱하나	營妓每嘲眞率飲
청나라사람 멀리서 가짜벼슬 치하하더라	華人遙賀假銜官
홀로 앉아 장검을 노래함도 마땅치 않고	蕭條不合歌彈鋏
내 또한 말타고 우쭐대려 앓노라	豐鑠非關示據鞍
푸른 잎 붉은 꽃은 센 머리를 희롱하니	草映靑袍花鬬髮
성밖을 나서는데 봄빛은 저무누나	出城春事已闌珊

(《조선고전작가론》 7. 406페이지)

이 시는 그가 이웃나라에 사신으로 갔을 때 그 나라의 문인들이 그의 학식과 품격에 탄복하면서 벼슬에 대하여 알고싶어하자 조선봉건왕조의 그릇된 신분제도로 인하여 벼슬길에 오르지 못한 자기의 불우한 처지를 애써 감추며 세류영의 종사관이라고 함으로써 가짜 벼슬에 대한 치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되였던 기막힌 사연을 노래한것이다.

시에서는 재능은 있어도 신분이 불우하여 나라의 큰 일을 맡지 못하는 불만의 감정이 짙게 흐르고있다.

시에서는 몇해에 걸치는 나그네생활로 몸도 글도 빛을 볼수 없는 기막힌 정상과 국내에서 벼슬도 하지 못하고 술도 제대로 마시지 못한다고 관가기생에게서까지 놀리움을 당하지만 반대로 청나라사람들은 자기의 처지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자기의 학식과 가짜벼슬에 대한 치하를 아끼지 않는데 대한 주정을 토로하고있다.

계속하여 시에서는 시인자신의 처지에 대한 울분의 감정이 쌓이고쌓여 《장검을 노래함도 마땅치 않고》 말을 타고 우쭐대려 하지도 않으려는 자기의 주장과 룡십도 넘어 회여진 머리를 희롱하는 《푸른 잎》과 《붉은 꽃》을 야속하게 생각하며 안타까움에 모대기는 심정을 진실하게 노래하고있다.

시에서는 파리해진 몸과 메마른 글, 관가기생과 청나라사람, 푸른 잎, 붉은 꽃과 하얗게 센 머리라는 대비적인 형상을 통하여 시인의 불만의 감정을 더욱 두드러지게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형상에는 재능과 학식은 있으나 당대 사회에서 벼슬길에 오르지 못하고 불우한 인생살이에 모대기는 시인자신에 대한 한탄의 감정만이 아니라 자기와 처지가 같은 서민들의 피로움과 그들이 겪게 되는 기구한 운명에 대한 시인의 동정도 반영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자기의 신분적구속에 대한 불만의 감정은 시 《진사시험에 합격한 날 칠보시를 짓노라》(2수)의 첫수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있다.

배속엔 시와 글이 몇백집 되는데	腹裡詩書幾百擔
금년에야 겨우 란삼 하나 얻었네	今年方得一襴衫
여보소 나이 많고 적음을 묻지를 마소	傍人莫問年多少
륙십년전엔 스물세살이었다오	六十年前二十三

(《조선고전작가론》 7. 416페이지)

시에서는 82살이 되어서야 오위장의 벼슬을 받고 친구들과 제자들, 일부 량반관료들의 축하를 받게 되는 기쁨이 아니라 덧없이 지나온 한생에 대한 시인의 서글픈 심정이 노래되고있다.

시인은 어려서부터 글공부와 시창작을 해오면서 많은 지식을 쌓고 수양을 쌓아왔지만 청춘시절을 값없이 보내고 벼슬길에 오를 나이도 아닌 인생말년에 와서야 겨우 오위장벼슬을 하게 된 어이없는 정상을 강한 불만속에 토로하고있다.

시에서는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신분적차별만은 어찌할수 없고 량반통치배들에 의해 인격이 무시당하는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당대 사회에서의 서민들의 운명에 대한 시인의 불만이 강하게 드러나있다.

이러한 불만의 감정은 《여보소 나이 많고 적음을 묻지를 마소/ 률십년전엔 스물세살이었다오》라는 시구를 통하여 더욱더 두드러진다.

조수삼은 인생말년에 겨우 벼슬을 하게 된 자기의 심정을 《밖이 부드럽고 안이 굳세니 미친듯 하면서도 실지는 미치지 않았다고 할것이 아니냐. 몸은 영예를 얻지 못했지만 그 수양이 높으니 능하지 못하면서도 가히 능하다고 할것이냐. 미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능하건만 역시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못하니 이것도 필시 운명이라고나 할가, 시세의탓이라고나 할가. 나는 갈아도 갈리지 않는 지조와 물들여도 물들지 않

는 청백을 사모하는 사람이다.(外柔而內剛者不狂而狂耶 身廢而道興者能於不能耶 不狂而人不能知能而人亦不能知命耶 時耶是則慕古人之 磨不磷涅不緇者也)》(《경완선생자전》)라고 피력하였다.

이밖에도 시 《밤에 앉아서》, 《집을 옮기면서》와 같은 작품들에서도 서민으로서 벼슬길에 나서지 못하고 량반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하는 어지러운 세상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었다.

이처럼 조수삼은 자기의 시작품들에서 신분적구속으로 하여 당대 사회에서는 도저히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수 없는 서민들의 울분의 감정을 비교적 깊이있게 일반화하였다.

비록 세계관적제한성으로 하여 조선봉건왕조에서 재능과 학식에 따라 인재를 선발하고 벼슬을 주지 않는 데 대한 불만에 머무르고 있지만 그의 시문학에서는 당시 인재등용의 폐단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가 반영되어있는것으로 하여 일련의 진보성을 가진다.

조수삼의 시문학의 주제사상적특성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불합리한 사회현실에 눈을 돌려 가난속에 허덕이는 인민들의 비참한 처지를 동정하고 그들의 반봉건투쟁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있는것이다.

시 《강진에서》는 농민들의 생존권문제를 기본으로 하여 예술적형상을 펼친 작가의 대표적인 시작품들중의 하나이다.

풍년을 원치 않고 흉년을 바라노라	不願豐年願儉年
흉년이면 행여 조세가 덜릴듯 하여	儉年租賦或停蠲
목화 피기 앞서 무명을 내라 하고	綿將吐雪先徵布
곡식을 거두기 전에 조세부터 독촉하니	禾未登場趣稅田
약이 좋다 한들 백성의 병 고쳐보라	上藥難醫黎首疾
원컨대 나라에선 그 병 아는이 보내여달라	中朝只仗簡心賢
큰 나라 큰 고을이 이다지도 한심한가	名城顯國多寥落
남으로 온지 열흘에 모두가 한모양이라	十日南來一盡然

(《조선고전작가론》 7. 466페이지)

시에서는 관가에서 날로 더해만 가는 조세독촉에 참고 견디다 못해 흉년이 되면 행여나 조세가 적어지지 않을가 하는 한가닥의 희망으로 풍년보다 흉년이 들기를 바라는 농민들의 심정을 생동한 화폭으로 펼쳐보이고있다. 그리고 목화꽃이 피기도 전에 무명을 내라고 강요하고 곡식을 거두기도 전에 조세를 독촉하는 량반통치배들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에 대하여 펼쳐보이면서 온 나라 어디에 가나 이러한 악독한 량반통치배들이 있어 《남으로 온지 열흘에 모두가 한모양》이 된 가궁한 처지를 형상적으로 펼치고있다.

시에서는 통치배들의 가혹한 수탈에 못이겨 비참하게 살아가는 농민들의 내면심리세계를 흉년이 들어야 농민들에 대한 수탈이 적어질수도 있으리라는 허무한 기대에 대한 형상을 통하여 보여주고있다.

특히 시에서는 백성들의 마음속고충은 아무리 약이 좋아도 고칠수 없다고 하면서 나라에서 그 병을 알아줄 어진 량반을 보내주기를 바라는 농민들의 희망을 펼쳐보이고있다.

이것은 당대 사회의 폐단이 일부 국한된 량반통치배들에게 있는것처럼 생각한 시인 자신의 그릇된 사상적제한성에 있다. 이로 하여 조수삼은 시에서 사회제도 그자체에 대한 비

판과 부정을 강조하지 못하였던것이다.

그러나 시는 농민들의 비참한 생활에 대한 생동하고 형상적인 시어를 통하여 그들에 대한 동정과 량반통치배들의 수탈행위를 까밝힌것으로 하여 의의를 가진다.

시초형식으로 된 시 《룡성에서》는 조수삼이 홍경래를 지휘자로 하는 평안도농민전쟁에 대하여 노래한 시로서 여기에는 이에 대한 그의 긍정적인 태도와 립장이 반영되어있다.

작품은 평안도농민전쟁의 시작으로부터 정주성을 공격하던 시기까지의 사건들을 소재로 하여 22수의 시로 묶여져있는데 그중 첫수는 다음과 같다.

듣자니 가산고을에 폭동이 일어	聞道嘉州賊
간밤에 장관을 잡아죽였다네	前宵殺長官
도적될 사람이 따로 있으랴	忍能爲寇盜
굶주림과 추위가 너무한탓이지	本不耐飢寒

(《조선고전작가론》 7. 485페이지)

이 시에서는 평안도농민전쟁이 시작된 정황을 제시하면서 그 발생요인을 량반통치배들이 가난한 농민들을 도적으로 치부하면서 갖은 학대와 멸시를 다한데 있다고 함으로써 당시 농민들의 투쟁을 긍정적으로 노래하고있다.

조수삼은 시에서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켜 량반통치배들로부터 《도적》이라는 소리를 듣게 된 원인에 대하여 굶주림과 추위로 하여 살려야 살수 없는 처지에 빠졌기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조수삼은 실지 평안도농민전쟁을 체험한데 기초하여 《도적될 사람이 따로 있으랴/ 굶주림과 추위가 너무한탓이지》라는 수사학적물음과 어순전도의 수법으로 시의 사상성을 더욱 강조하고있다.

사실상 그는 평안도농민전쟁이 실패한 후 농민군이 마지막까지 결사전을 벌린 정주성을 비롯한 싸움터들을 거둬서 밟아보면서 황폐화된 마을들과 고통을 겪는 사람들의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 원통하게 죽은 사람들의 령혼을 위로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불쌍하게 죽은 농민군에 대한 시인자신의 립장의 뚜렷한 표현이기도 하다.

비록 그가 조선봉건왕조를 크게 뒤흔들어놓은 평안도농민전쟁이 봉건국가의 질서를 무질서하게 만들고 나라를 소란하게 하는 《도적》의 란리로 생각은 하고있었지만 그 원인을 량반통치배들에 의하여 당하는 굶주림과 추위로 묘사한것은 일정한 의의를 가진다.

조수삼의 시문학의 주제사상적특성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우리 인민들의 로동생활과 세태풍속을 노래하고있는것이다.

시초형식의 시 《발갈이와 길쌈날이》는 농민들의 근면한 로동생활을 방불하게 그려낸 작품이다.

시초에서는 씨담그기로부터 봄발갈이, 씨레질, 모기르기, 모내기, 김매기, 물대기, 가을걷이, 난알털기, 벼짚기, 조세바치기, 두레놀이에 이르기까지 주로 알곡생산과 관련한 한해의 영농절차와 농민들의 풍속, 누에를 쳐서 고치를 따가지고 실을 켜 천을 짜서 물을 들어 옷을 짓기까지의 녀성들의 길쌈작업과정을 비롯하여 우리 인민들의 다양한 로동생활을 폭넓게 형상하고있다.

우리 인민의 로동생활을 반영한 시작품들중에는 시 《세벌김》도 있다.

거친 풀 매여주니 포기마다 싱싱 자라고	亂草除來碩穎長
호미 멘 농사군의 그림자 못물에 비끼여라	荷鋤人影入陂塘
남풍이 지나가고 서풍이 불어오니	南風乍過西風起
눈인양 어지러이 벼이삭 설레이네	早雪紛紛稻吐茫

(《조선고전작가론》 7. 519페이지)

제목에서 보는바와 같이 시에서는 봄내 땀흘리며 씨불입한 농사군이 두벌김도 성차지 않아 세벌김까지 매여가며 정성을 다해가는 모습을 생동하게 그려내면서 봄내여름내 땀흘려 가꾼 보람이 있어 이제는 알찬 벼이삭이 여물기 시작하는데 대한 농사군의 흐뭇한 감정을 형상적으로 펼쳐보이고있다.

시에서는 《호미 멘 농사군의 그림자 못물에 비끼》고 《눈인양 어지러이 벼이삭 설레이》는 광경을 생동한 시적표현으로 형상함으로써 로동생활에 대한 시인의 긍정적인 립장을 잘 반영하고있다.

우리 인민의 로동생활을 반영한 시작품들가운데는 녀성들의 길쌈작업과정을 보여주는 시 《길쌈》도 있다.

누에농가 젊은 아낙네 고생도 심해라	蠶家少婦服勞多
비단짜기 배운것 그리도 후회하네	悔學當窓織綺羅
췌배자에 베치마 차갑기는 무쇠 한가지	葛帔布裙寒似鐵
깊은 밤 흑흑 손을 불며 억지로 북올리네	夜深呵手強鳴梭

(《조선고전작가론》 7. 521페이지)

시에서는 깊은 밤 언손을 입김으로 불어가며 억지로 북을 올리는 누에농가의 젊은 아낙네의 길쌈작업모습이 방불하게 안겨온다.

시 《세벌김》이 설레이는 벼이삭들을 바라보는 농사군의 감정을 노래한 시라면 시 《길쌈》은 비단짜기를 배운것이 죄가 되어 밤이 깊도록 잠에 들지도 못하고 길쌈을 해야 하는 가공한 처지를 펼쳐보이고있는것으로 하여 두 작품의 양상이 질적으로 구별된다.

시에서는 《췌배자에 베치마》는 무쇠덩이처럼 찬데 어쩔수없이 길쌈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골녀인의 비참한 로동생활에 대하여 생동한 형상으로 펼쳐보이면서 량반통치배들에 의해 불행과 고통을 강요당하는 당시 녀성들의 비참한 처지에 대한 시인의 동정과 련민의 감정을 일반화하여 보여주고있다.

우리 인민의 아름다운 세태풍속을 노래한 대표적인 작품으로서는 시초형식의 시 《상원죽지사》가 있다. 여기에서는 우리 인민들의 민속명절의 하나인 정월대보름날의 15가지 명절놀이를 하나씩 생동한 시적형상으로 펼쳐보이고있다.

대표적으로 시 《연》을 들수 있다.

누런 실 흰 실 엇갈려 서로 노려들 보며	黃絲白絲細相伺
부는 바람 아래우에서 하루종일 다투네	竟日惟爭上下風
회오리 찬바람소리 어디서 일어나더니	寒嘯一聲何處起
만사람이 머리 들어 푸른 하늘 쳐다보누나	萬人擡首碧霄中

(《조선고전작가론》 7. 534페이지)

시에서는 민속명절인 정월대보름날 만사람이 모여 연띄우기를 진행하는 광경을 7언절구형식에 담아 노래하고있다.

작품에서 시인은 찬바람이 불어오는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저마다 더 높이 연을 띄우느라 여념이 없는 모습에 대한 시적형상을 통하여 우리 인민이 예로부터 진행해온 민속놀이의 하나인 연띄우기가 그대로 하나의 즐거운 생활놀이로 되어왔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 인민의 즐거운 로동생활과 아름답고 고상한 세태풍속에 대한 시적일반화는 언제나 우리의것을 사랑하고 적극 내세우려는 조수삼의 사상미학적견해와 떼여놓고 생각할 수 없다.

그는 조선봉건왕조말기의 현실과 당대 사회의 모순, 불합리성을 폭로비판하고 억압당하는 근로농민들을 비롯하여 수공업자, 상인들, 신분적으로 천시받던 서민들 등 각이한 계급, 계층의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한 수많은 시들을 창작함으로써 서민문단에서 자기의 뚜렷한 얼굴을 나타내였다. 그것은 조수삼이 이름있는 실학자, 서민들과의 활발한 교류 그리고 여러 경험을 쌓는 과정에 조선봉건왕조의 폐단과 모순을 보다 예리하게 가려보고 현실을 비판적안목에서 보고 평가하였으며 실학적인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온것과 중요하게 관계된다고 볼수 있다.

실마리어 세벌김, 추재집